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형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592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8월 23일(음력 7월 30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 29

## 다 내던져 버리고 편안하게 사세요!

### 자식을 올바르게 이끌려면

**문** 자식이 너무 속을 썩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길로 이끌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청개구리가 따로 없이 그렇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기에 제가 열심히 살아서 부모에게는 효도를 해야 하고 자식들은 남부럽지 않게 길러서 내보내야 하는데 '사는 게 뭐가? 내가 왜 자식에게 내 자신의 삶을 저버리고 이렇듯 희생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살기가 싫어집니다. 스님께서는 원수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으로 만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인연의 부모는 어떻게 자식을 이끌어 줘야 하나요?

**답** 애착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또 부모한테도 그렇게 애착을 두지 말고 효도를 해라 이겁니다. 자식이나 부모나 남이나 똑같이, 남한테 이익하게 하고, 겸손할 줄 알고, 고개 숙일 줄 알고, 마음으로써 말합니다. 항상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면 누구한테나 인과응보라는 그 소리조차 없을 것이고 또는 자식과 부모지간에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금끼리 만나고 이렇게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전생애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고, 이렇게 받아야 하고, 이렇게 아파야 하나 이러지만 그것이 애당초부터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의 인연에 따라서, 인과응보에 따라서 만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먼저 못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 있을 때 이 도리를 알고 배워야, 죽어서도 지금 살아 있는 그 애착과 모든 걸 다 몰락 버리고서 애착을 두지 말고, 욕심도 두지 말고, 내가 한생각 전부 낫을 때 비로소 죽어도 그것은 시공이 없는 그 대공의 한자리를 할 수 있다 이 소리에요, 꾀달리지 않고, 그러니 우리가 윤회에 딸리는 것도 억겁을 거쳐서 말리지만, 우리가 한생각 풀려서 이 도리를 몰락 놔 버리고 안다면 또 말리지 않고, 꾀달리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산으로 돌아오니 보니까 빨치산으로 붙들렸거든요.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조화를 했던지 이제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산으로 찾아왔는데 보니까,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참 그 마음은 어디다가 다 할 수가 없지만,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한 예가 있어요. 내가 사람 같지도 않으니 어머니가 그 자리에 팔뚝 주저앉으시면 서 그때 그만 사람이 못써 돼 버렸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난 또 그렇게 됐는지 어떤지 아랑곳없이 거기에서 그냥 '어머니! 어머니의 진짜 자식이라면 다시 요다음에 내가 사람이 돼서 올 것이고 진짜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면, 사람이 못된다면,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애착을 때 버리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하고 떠났거든요.

떠날 때 어머니가 좋은 옷을 두 벌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바지가 다 떨어지고 그러긴 했지만 그 몸에다가 그 옷을 걸치면 뭐합니까? 아니, 그 말도 못하게 찢어지고 피가 나고 딱지가 앉고 사람 같지도 않은데다가 그 옷을 입으면 뭘 합니까. 그래서 가다가 그 좋은 옷은 내 맘대로 주고 이려고는 한 산보통이로 돌아왔을 때 가랑이가 자욱자욱 밟히더라고요. 그 소리가 요란하게 하면서 나를 울렸죠. 그때에 나는 무슨 노래를 혼자 부르고 갔느냐 하면 '어머님의 손을 놓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산보통이를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혀잡음이 눈물이 흘러지면서, 이렇게 텅텅 빈 인간이, 이 모습의 그림자를 보시고 저렇게 쓰러지셨으니, 이것마저도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보이게 했다는 것이 너무나 잔인무도하고, 그래서 나는 몸 돌 바를 몰랐었어요. 하지만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 예가 있듯이, 진짜 자식이라면 금과 금이 마주 있을 때에 금은 돌이 아닌 거예요. 금은 금이기 때문이죠. 근데 뭘 애착을 갖고 그림자가, 다시 금이 세상에 나와서 한 번 또 만났으면 헤어지는 일이 틀림없을 텐데, 그 모습을 말합니다. 헤어졌다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났다가 반복하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내 자식이라 하고 무엇을 내 부모라고 하겠나. 그저 내가 뿌린 거니까 내가 해결해야겠으니 착이 없이 그대로 이익하게 해야죠.

아주 못생긴 소나무를 봐도 '아이, 너도 나와 같

이 못생겼구나. 못생긴 너지만 이 위의 손을 차르던 너 모가지까지 달아나니 아이, 너하고 나하고 만난 인연도 인연이니 우리 같이 살아 보자.' 하고 맨 끝에 밑바닥에 달린 그것을 소나무 가지로 꺾어서, 그 잎을 씹어 가면서, 또는 그 대를 씹어 가면서 물을 마시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심이 부끄럽진 않아요. 누구를 해치려고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건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실과나무는, 오늘 저녁에 간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까지는 살아야 한다. 이런 게 투철합니다. 착이 없으면서 그대로 하는 거죠.

내가 부모고 자식이다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막아서고 그러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과응보로서 유전성으로서 그런 그대로 과보대로 그냥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자식 부모다. 부모가 '넌 요리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랬다 하는데 자식은 '난 이리로 가는 게 좋겠소.' 그럴 때에 이 부모가 생각할 때는 '이리로 가면 안되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럴 때에 자식은 부득이 이리로 가겠다고. 예를 들어 얘기예요. 그러면 '아! 클로 가는 것이 네가 옳다. 그러로 간다 할지라도 네가 너를 위해서, 항상 부처의 증상은 들어 아니니까, 가는 대로 길을 내가 찾아 가면 되니까.' 하면 되지 뭐 애를 필요 없어요. 하나도 애를 필요가 없어요. 떨어졌다 붙었다 이래도 애를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저를 찾아 저가 가게 돼 있어요. 뒷받침이나 해 주고, 부처님께서도 그 뒷받침을 그렇게 해 주고 원하는 자에게 마다 안 하고 증생들에게 해 줬죠. 지금까지도 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이상 부처님은 항상 살아 계

게요. 많은 사람을 접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보약 하나도 안 먹고 자기가 아예 생각에서 그냥 보약을 먹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아, 다 그냥 거기서밖에 할 수 없지. 거기서 기운을 내게 해야지, 응? 기를 넣고 피가 좋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보약도 다 그냥 부처님한테 자기 성의대로 갖다 놓고는 자기들이 해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약을 아주 끊고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깐 그것은 자유예요. 근기에 따라서 그것이 되는 거지, 근기가 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하는 고정됨이 없어요.

그러니깐 여러분의 마음대로, 자유대로 하세요. 편리하게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고, 진짜 우리가 공부할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좀 너그럽고

에,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해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가서 병원에서 진찰을 하니깐 이 건 방사선 쪼지 않을 것을 봤다 이겁니다. 쪼여 가지고는 이게 살이 굳어져 가지고 도대체 마비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자꾸 부어오르는 거예요, 살이.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인제 다시 수술을 하고 방사선 기를 없애면서 두 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인제 아랑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스님이 그렇게 나오란 말을 안 하셨으면 예는 죽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일에는 가야 하지만 안 갈 일에는 안 가야 합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벌써 가야 할 건지 안 가야 할 건지 자기가 먼저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기독교다 가톨릭이다 이런 걸 떠나서입니다. 부처님은 당시에 이런 공부들 그냥 실상 속에서 실현을 하계끔 참선을 가르치시고 마음을, 병을 고쳐 주셨지, 무슨 육신을 고쳐 주거나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만 고친다면 육신의 병은 여러분이 자유재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 불사신이고 불사악이라면?

**문** 불자로서 보기도 해야 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불사신 불사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선도 생각을 안 하고 악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 바보라는 생각이 나오는 것도 놓으세요. 이거 보세요, 내가 길을 가다 보니까 장님이 말입니다. 장님인데 클럽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많이 있으면 눈 뜬 사람이 그걸 가져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얹혀 놓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걸 생각 못하고 저거를 안 되겠다 싶어서 가다가 보니까 '에이, 저도 저지 누가 돌을 돌는다고 그래?' 그렇까 봐, 그것도 좀 난 수줍어요. 그렇게. 그래서 얼른 뒤로 돌아가면서 심만 원자리 하나하고 만 원짜리 다섯 개하고 푼푼 문쳐서 손에다 잔뜩 쥐었습니다. 쥐고선 가다가 얼른 그 사람 손을 딱 쥐고 요 걸 쥐어 주고선 '15만 원이야!' 그랬습니다. 귀에 다 대고 살짝 말하면서 쥐어 주곤 '위야, 날 살려라.' 하고는 부지런히 그냥 길을 걸었습니다.

거기 이유가 뭐가 불습니까? '이런 걸 보시를 해라 안 해라.' 이런 게 무슨 이유가 불습니까? 내가 가다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한 거지, 그것뿐이지 무슨 이유가 거기 불습니까? 여려운, 변소에 가서 푼 놀 때 이유가 불습니까? 잘 때도 이유가 불고 먹을 때도 이유가 불습니까? 이유 불지 않습니다. 진짜 배고플 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밥 딱 갖다 놓고는 그냥 퍼먹습니다. 푼 급할 때 변소 문 열자마자, 무슨 이유가 거기 불어? 그냥 뭐 그냥 그냥 들어가서 얼른 풀고 누고 나와 그때 조금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급할 때 이유 불지 않듯 참선이라는 것은 그렇다 이 소립니다. 급할 때 이유 불지 않듯, 왜 좋은 옷을 입고 가다가요, 요거 흠을 필까 봐 좀 사리고 그러다가, 요거 않는 데도 좀 조심해서 하고 그러다가 나중엔 흠먼지 비가 그냥 막 쏟아져서 만약에 다 맞았다고 할 땐, '에라, 이젠 다 맞았다.' 이럴 땐 조심도 안 되고 물방울 필까 봐 걱정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공해서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며 무엇을 안 했다고 하며 무엇을 더 한다 덜 한다 가 있었습니까. 내가 불쌍한 것 보면 그대로 하는 거고 또는 내가 할 게 없으면 무주상 보시로 마음을 내서 저 사람도 그렇게 잘 살아라 하고 마음을 내 주면 무주상 보시가 되고, 유주상 보시도 그렇게 하고, 아, 양면으로 다 해도 한 사이가 없어요. 이유가 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게 참선이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바보인가?" 그러거든요. 가만히 놓고 가면 뭘 먹고 사는냐 이거예요. 벌이하는 것도 참선이요 못하는 것도 참선이요, 일하는 것도 참선이요, 아, 모두 부지런히 뛰는 것도 참선인데, 지금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참선이에요. 아, 지금 세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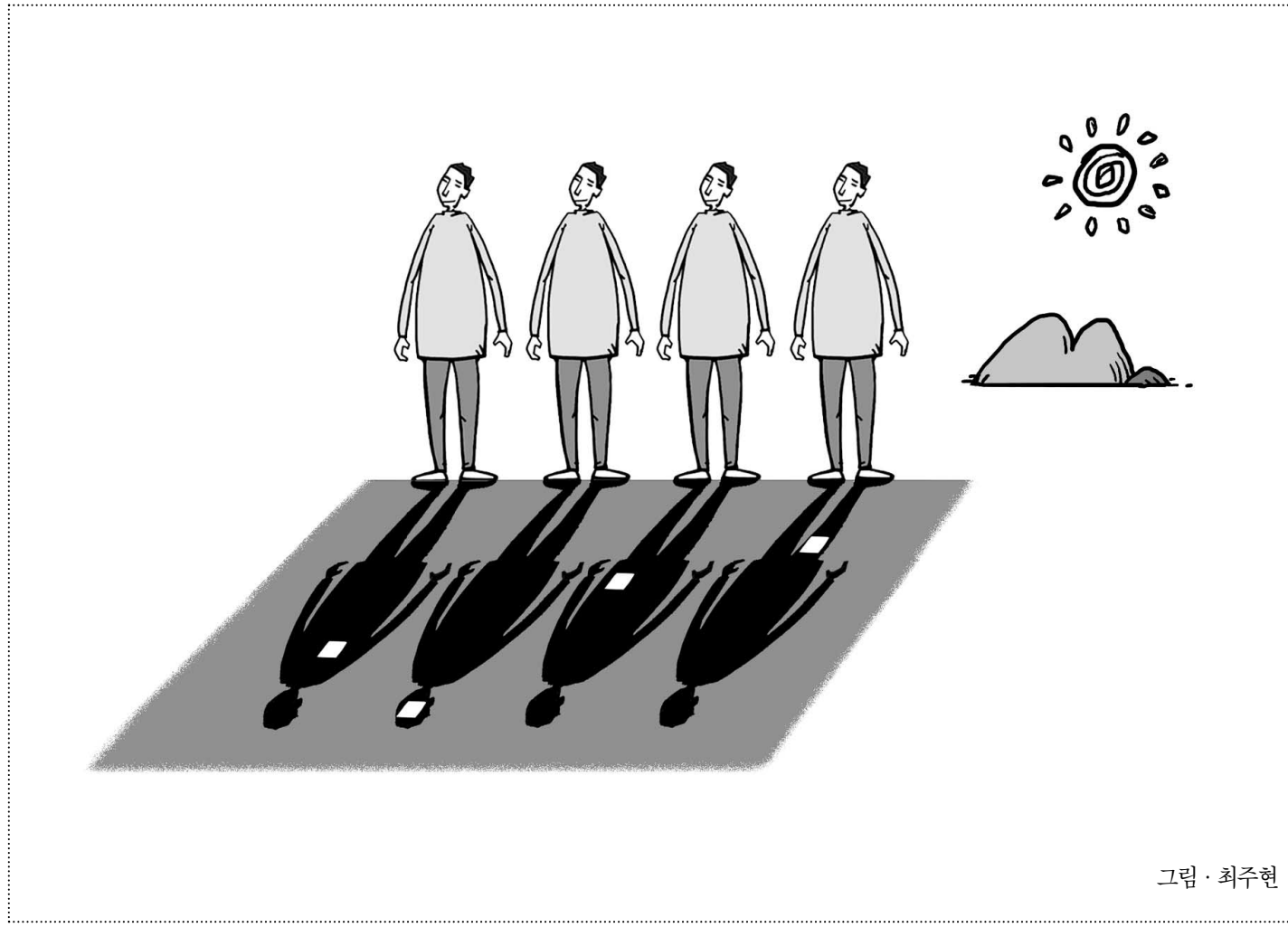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 더한다 덜한다 하겠는가!

거죠. 그러니까 막아서서 안달복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애를 쓰고 살 필요가 없어요. 괴롭게 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괴로움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뭐 그렇게 괴로움을 게 없습니까? 다 우리가 해 놓고서, 자기 자신들이 해 놓고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인제부터라도 알고 착을 탁 끊어서 놔 버려라 이겁니다. 내 마음의 주체가 있듯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주체도 엄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못되게 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놔 버려라 이겁니다. 누구든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불이 나 보세요. 어미 애비 생각하고 자식 생각 할 사이가 없어요. 그냥 뭐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살 구원은 다 찾습니다. 그런데 왜 엘 써야 합니까. 애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만났다가, 짚단을 한데 이렇게 부적을 시켜 놔다가 헤어질 때 되면 훌쩍이 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왜 애를 써요. 언제 적엔 부모 자식이, 언제 적엔 부부였고, 언제 적엔 한식구였어요? 깻벌레가 원수 같더라고 태어난 것, 그것도 인과응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으면서 홀로 있고 같이 있으면서 홀로 있고, 그것이 스스로 자기가 느끼고 스스로 알아야 하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던져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입니다. 꼭 차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입니다. 여려하게 말입니다. 그러니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거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홀로예요. 항상 홀로 있으면서도 항상 같이 있고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홀로 있고 말입니다. 예너지라고 한다면 그냥 같이 들고 있기 때문에, 내던져도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던지면 오히려 살게 돼 있고, 내던지지 않는다면 육(肉身)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되죠. 그러니 다 내던져 버리고 편안하게 사세요.

###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문**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서 다 돌려놓고 생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거기 해당되는 인간 법이 있을 경우에는 인간 법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 주인공에 다 일체 맡겨 놓고서 거기 따라가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법이라고 한다면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서 그걸 주인공에다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맡겨 놓고 여려하게 걸어가야 되는지.

**답** 그것은 이런 게 있죠. 모든 게 한계가 있듯이 아마도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그럴

여유 있게 뭐, 이런 것 병으로 인해서 먹는 약이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 이러한 피로회복제도 좀, 건강약이 피로회복제라고 합디만, 그런 것을 좀 먹으면 좋겠다 할 때는 그냥 잡수셔도 좋고요. 거기에도 칼리지 말아야 되겠죠. 또 병원에 갈 일이라면 병원에 가는 것도 참선이고 그것도 법이니까요. 그런데 병원에 가셔도 이것이 외려 해가 될 병이라면 차라리 안 가는 것만 못하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글썽 어떤 사람이 이 넓적다리에 부스럼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가서 진찰을 했는데 그것을 악성이라고 하면서 수술을 하고는 이렇게 잘라내고 도려내고는 방사선을 쪼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런 대다가 방사선을 쪼여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답니다.

그런데 방사선을 쪼여 가지고 이게 그냥 이 다리 하나가 이렇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그 남자를 이렇게 들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 작하고 너무 선량하고 너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병원에서 퇴원시켜라. 퇴원시켜 가지고 좀 있다가 다시금 한 번 다른 데로 가서 진찰을 해 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사선 쪼는 데서 끌어냈죠. 그러니까, 끌어내 가지고선 얼마를 있다가 인제 그 안에 모든 것이 좀 유해지고 물렁물렁해지고 그럴 쯤에 '아, 병원으로 가라, 인제, 아주 탄 병원